

## 한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과제\*

김 홍 기\*\*

**논문 초록**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불평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저성장과 불평등의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영세성과 소규모 기업이 주도하는 서비스업종의 낮은 생산성, 이에 따른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저성장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동성 제고 및 규모화(scale up)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과 성장으로의 중소기업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증거기반 정책 개발과 서비스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저성장, 불평등, 생산성, 역동적 기업생태계, 중소기업, 규모화, 증거기반 정책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 M0

투고 일자: 2025. 2. 24. 심사 및 수정 일자: 2025. 3. 6. 게재 확정 일자: 2025. 3. 26.

\*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hongkee@hnu.kr

## I.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30여년간 연평균 7~8%대의 경제성장률로 고속성장을 구가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높은 성장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의 기적 국가’라고 칭송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1%씩 하락하며 2000년대에는 5%대, 2010년대에는 3%대, 2020년대 이후에는 2%대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은 2025년 현재 이미 1%대에 진입했을 수 있고, 조만간 0%대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장기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압축성장에서 압축 추락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어떠한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은 커지며, 이는 경제성장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분배는 성장과 안정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2010년대 이후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규모 간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은 저성장과 불평등 악화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과 불평등 문제의 이면에는 상당한 정도 중소기업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에 따른 저성장,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와 낮은 생산성의 과도한 영세소기업(소상공인)의 비중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불평등의 현상을 중소기업의 문제와 연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불평등

### 1. 저성장 심화

우리나라는 1960년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1960년대(1962년 이후)와 1970년대에는 10%대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고, 1980년대에도 9%의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1990년대에는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기적 국가’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률이 4.7%로 하락했고, 2010년대에는 2.9%로 더욱 떨어졌다. 2020년대 초반에는 2%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세직 교수(2016)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2030년대에는 0%대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하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성장의 수렴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입요소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속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주요 선진국(G7)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가장 빨리 성장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추락하는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성장률 주된 하락 요인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1990년대에는 투입노동 기여도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이는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동 투입 감소보다 자본 투입 증가둔화 및 생산성 증가율 감소가 장기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1990년대 3.8%에서 2000대 2.0%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대의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자본기여도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201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둔화가 장기 성장률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0.7%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2010년 이후 장기 성장률을 저하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정리하면, 1990년대의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노동 투입 감소에 기인하고, 2000년대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자본투입의 증가 둔화에 기인한다. 2010년대의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

성장이론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가 총요소생산성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은 미래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sup>1)</sup> 〈Table 1〉에서의 미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반전되어 1%를 전제로 2020년대(2023~30년)에는 1.9%, 2030년대에는 1.3%, 2040년대에는 0.7%대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 성장률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Table 1〉 Contribution to Long-term Growth by Growth Factor

		economic growth rate	labour	capital	Total factor productivity
past	1980s	9.1	2.0	4.3	2.9
	1990s	7.2	1.0	3.8	2.3
	2000s	4.7	0.8	2.0	1.9
	2010s	2.9	0.9	1.4	0.7
Future	2020s*	1.9	0.0	0.9	1.0
	2030s	1.3	-0.3	0.7	1.0
	2040s	0.7	-0.7	0.4	1.0

Note: The 2020s refer to the period from 2023 to 2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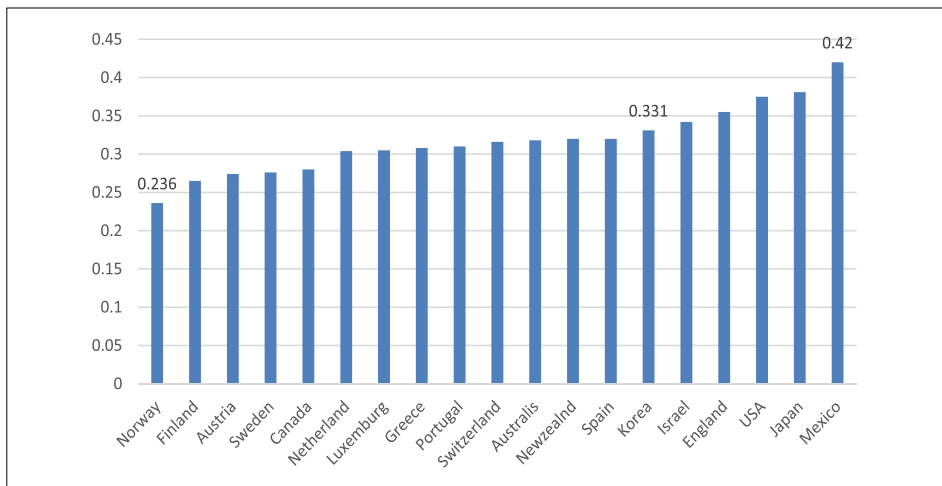
Source: Requoted from Kim, In-Jun & Young-Seop Lee (2023).

## 2. 소득 불평등

OECD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0.331로 멕시코나 미국, 영국, 및 일본보다는 낮지만,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보다는 높고, 비교 대상 국가 19개 국가에서도 6번째로 큰 수치를 보여 소득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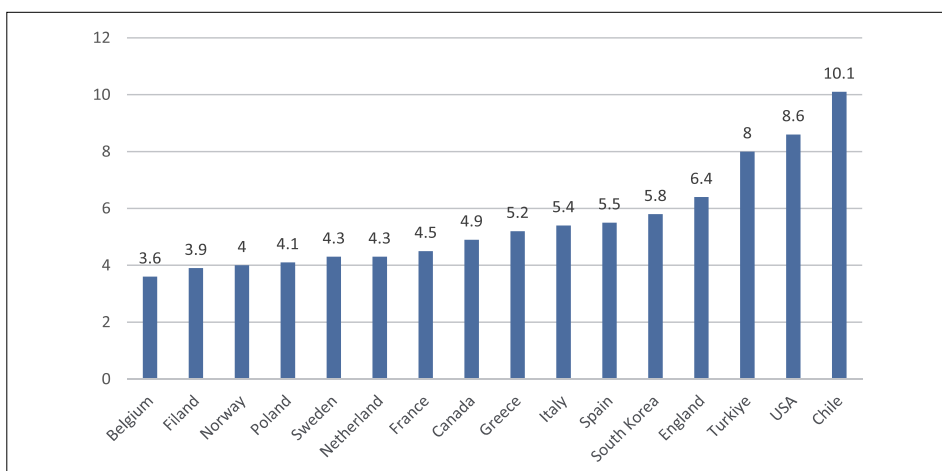
1) KDI(2021)에서의 미래 경제성장률 전망에 있어서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2010년대의 0.7%보다도 높은 1.0%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세의 반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미하기도 한다.

〈Figure 1〉 Gini Coefficients of Major OECD Countries



Source: OECD.

〈Figure 2〉 Relative Poverty Rat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Source: Statistics Korea (KOSTAT).

5분위배율로 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5분위배율은 5.8로, 칠레(10.1)나 미국(8.6) 및 영국(6.4) 보다는 낮지만 비교대상 17개국 중에서 5번째로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시장소득 기준으로 5분위배율을 시계열로 보더라도 2013년 10.3에서 2019년 11.6까지 상승하였다가 2023년에는 10.7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

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보다 50% 이하의 소득을 갖는 인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이나 칠레에 비해서는 낮지만 14.9로 비교대상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나, 5분위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로 평가할 때 OECD 국가에서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앞에서 중요소생산성 성장률이 1990년대 2.3%에서 2010년대 0.7%로 하락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생산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생산성본부(2024)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7위이고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2위이다. 이는 미국 대비 61% 수준 독일 대비 60% 수준이며, G7 대비 68%, OECD 평균 대비 79%에 해당한다.

노동생산성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각 다르게 평가된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다. PPP(구매력평가)를 적용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101%, 독일의 116%, 일본의 137%이고 G7의 117%, OECD 평균의 127%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1.5%, 독일의 79.3%, 일본의 102.2% 수준이고 G7의 66.1%, OECD

〈Table 2〉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Level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s between Major Countries and South Korea  
(Major Countries = 100, Purchasing Power Parity Basis)

comparative country	manufacturing industry	Service sector
Germany	116.5	79.3
USA	101.1	51.5
England	134.9	87.8
Japan	137.5	102.2
G7	117.3	66.1
OECD	126.7	73.9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based on data from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2024).

평균의 73.9%로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Table 2〉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제조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통·음식·숙박업이 특히 낮아 미국 대비 53.5, 독일 대비 70.9, G7 대비 63.5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고 또한 OECD 평균 대비 69.4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Table 3〉 참조).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종사자의 비중이 특히 높아 전반적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sup>2)</sup>

〈Table 3〉 Relative Labor Productivity Levels by Service Industry in South Korea  
Compared to Major Countries (Major Countries = 100)

	Overall Service Industry	Distribution, Food, and Accommodation Indust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inance and Insurance	Other Service sector
Germany	79.3	70.9	78.4	111.4	69.6
USA	51.5	53.5	61.2	83.2	46.4
England	87.8	79.8	85.1	78.0	64.2
Italy	79.0	61.5	78.0	91.8	90.1
Japan	102.2	85.7	100.5	114.4	109.7
France	75.7	65.6	71.4	117.5	56.5
G7	66.1	63.5	71	89.7	63.3
OECD	73.9	69.4	73.3	90	73.5

Source: Korea Productivity Center (2024), International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그 격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9.4%로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이 안되는 수준이다(〈Table 4〉 참조). 이러한 수치는 일본이 66.4%, 독일 72.5%, 프랑스 83.6%, 미국 97.0% 그리고 주요 선진국(G7)이 87.6%, OECD 평균이 84.6%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유난히 낮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비중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28.8%, 음식숙박업이 19.6%를 차지함(소상공인실태조사, 2022). 또한 OECD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업 종사자중에서 유통·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36.4%로 독일 29.3%, 프랑스 27.6%, 미국 31.2%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Table 4〉 Productivity Gap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Manufacturing = 100)

	Korea	USA	Japan	Germany	France
Labor Productivity of the Service Industry Compar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49.4	97.0	66.4	72.5	83.6

Source: Korea Productivity Center (2024).

### Ⅲ. 중소기업의 현황

#### 1. 중소기업의 높은 고용 비중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사업체수로나 종사자수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중소벤처기업부(2022)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사업체 기준으로 805만으로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로는 1,895만명으로 81.0%를 차지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높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나라마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고용인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49인 이하 기업체의 고용비중이 우리나라는 86%으로 미국(42%), 프랑스(53%), 영국(54%), 독일(5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OECD, 2021).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비중이 대단히 높아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규모별 종사자 비중을 보더라도 1~4인 이하의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5~9인 이하의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12.6%로 9인 이하의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Table 5〉 참조). 우리나라 노동자의 45% 이상이 9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우리나라의 9인 이하의 소상공인(Micro Enterprise)과 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중기업과 대기업의 종사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다. 반면 소상공인 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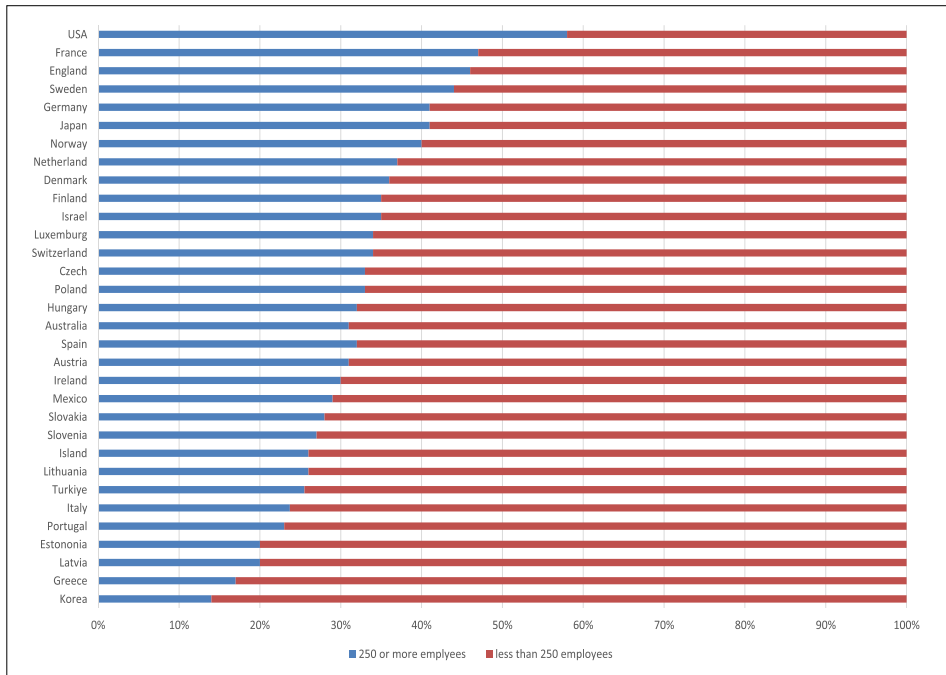
3) 제조업에서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7.4%이고 종사자수로도 70.2%이다.

4)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고용 비중이 24.6%로, 이탈리아의 22%, 프랑스의 13%, 일본의 9%, 미국의 7%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OECD 평균 16%보다 훨씬 높다(21년기준).



중기업이나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OECD 평균과 유사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대기업이나 중기업의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높다.

〈Figure 3〉 Job Share of Enterprises with 1 - 249 Employees and 250 or More Employees in OECD Countries



Source: OECD,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21: Country Profiles, 2021.

〈Table 5〉 Job Share by Business Siz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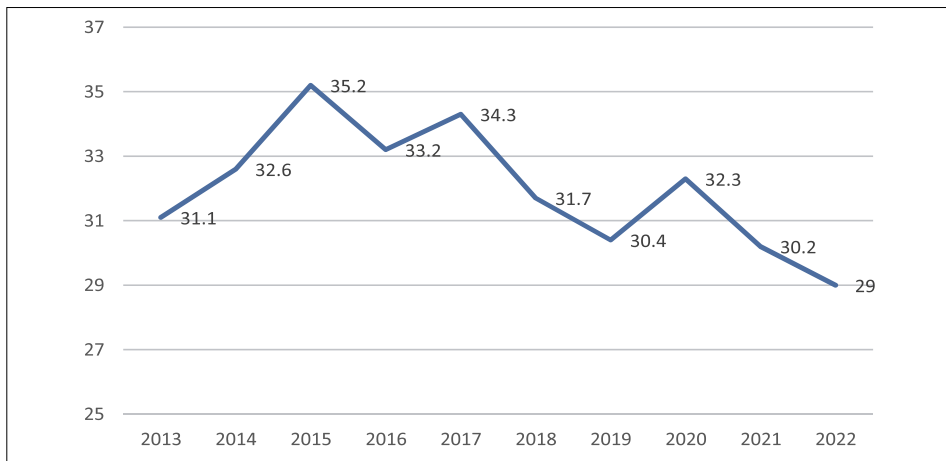
business size (employee)	job share (%)
1~4	33
5~9	12.6
10~29	16
30~99	15.4
100~299	9.2
300~499	3.2
more than 500	10.6

Source: National Business Survey (2021).

## 2.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제조업의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0%에 불과해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커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비율은 2015년 35.2%에서 2022년에는 29.0%까지 하락하였다(〈Figure 4〉 참조). 이렇게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큰 주요 원인은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의 생산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난히 높고, 반면 영세기업(9인 미만 종사자)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즉, 대기업의 생산성은 외국에 비해 높은데 반해 영세기업의 생산성이 낮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Figure 4〉 Labor Productivity Ratio of SMEs to Large Enterprises (Manufacturing, Unit: %)



Source: Korea Productivity Center (2024).

기업규모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도 높고 임금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나 일본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지만 그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현저하다. OECD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할 때 10~49인의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30%이고 50~99인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37.5%, 100~249인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48.6%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25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 할 때 10~49인의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50.5%이고 50~99인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60%, 100~249인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76%에 이른다. 이러한 사업체 규모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임금의 차이도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5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10~49인의 사업체의 임금은 51.3%이고 50~99인 사업체의 임금은 58.5%, 100~249인 사업체의 임금은 65.3%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업체 규모별로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크고 임금의 차이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나 임금격차가 외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평균 규모의 격차가 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작은 규모 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고 글로벌 대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 기업분포가 양극단적인 분포를 갖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평균적으로 규모가 큰데 반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sup>5)</sup>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기업 규모별로 비교하면 외국보다 높지만, 제조업 전체의 평균으로는 외국보다 높지 않다.

다음에는 서비스업의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생산성본부(2024)에 따르면 100인 기업체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 할 때 1~4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1%, 5~9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59%, 10~49인 노동생산성은 74%에 해당한다. 즉 제조업과 비슷하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5〉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 규모별 서비스업의 산업구조를 보면 1~4인의 사업체수의 비중이 87.6%, 5~9인 사업체수의 비중이 7.8%이다. 한편 고용비중을 보면 1~4인의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38.8%, 5~9인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14.4%, 10~49인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21.4%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측면에서 49인 이하 사업체 규모의 고용비중이 74.6%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Table 4〉 참조).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종의 종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세 소규모 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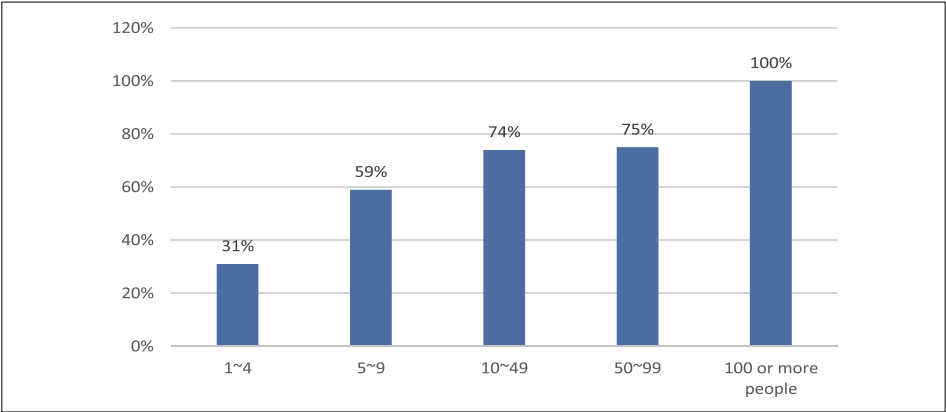
5)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고용 규모는 미국의 138%, 일본의 126%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평균고용규모는 미국의 50%, 일본의 74%에 불과함(한국국제경제학회, 2023).

〈Table 4〉 Industry Structure by Business Size (employee) in the Service Sector (2022)

	1~4	5~9	10~49	50~99	more than 100
number of establishment	87.6	7.8	4	0.3	0.2
employee	38.8	14.4	21.4	6.6	18.8
value added	19.9	14.1	26.3	8.3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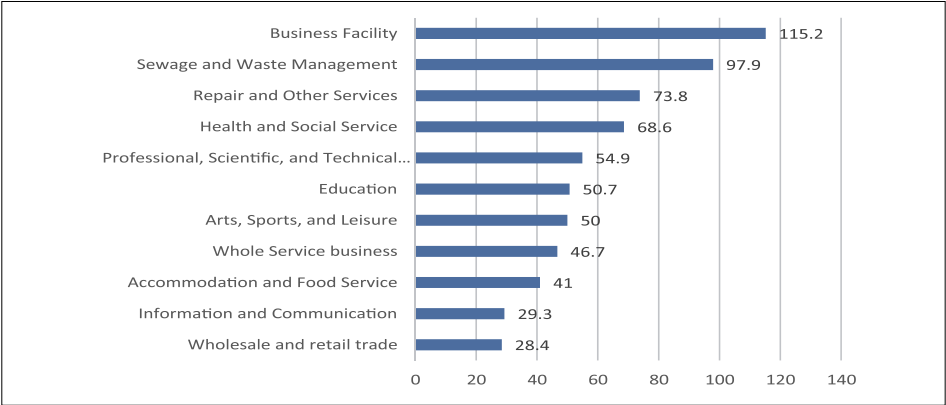
Source: Korea Productivity Center (2024), Labor Productivity in the Service Sector.

〈Figure 5〉 Labor Productivity by Business Size in the Service Sector  
(100 or More Employees = 100, 2022)



Source: Korea Productivity Center (2024), Labor Productivity in the Service Sector.

〈Figure 6〉 Comparison of the Gap between Large and Small-Medium Enterprises  
by Service Industry (2022)



Note: Labor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Source: Korea Productivity Center (2024).

다음에는 서비스업에서의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별로도 큰 차이가 난다. 도소매업과 정보통신 그리고 음식숙박업에서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 도소매업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28%, 음식숙박업은 41%에 머물고 있다(〈Figure 6〉 참조).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OECD 평균에 비해 생산성이 낮으면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 3. 중소기업의 역동성 저하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활발히 진입하고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부실기업이 적기에 퇴출될 때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져 역동적이고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역동성은 기업의 진입률·퇴출률, 일자리 창출력, 기업규모 간 이동성 등을 통해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높으나 젊은 기업의 비중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6)</sup>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률은 2023년 기준 12.7%를 기록하여 과거 10년 평균 약 15%에 비해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 주요국보다는 창업률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sup>7)</sup> 또한 진입율(업력 2년 이하의 기업)은 중국의 약 2배, 일본의 약 6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진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젊은 기업(업력 10년 이하)의 비중은 중국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진입(창업)기업은 많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소멸률은 2014년 14%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현재 10.2%에 머물고 있다. 기업소멸률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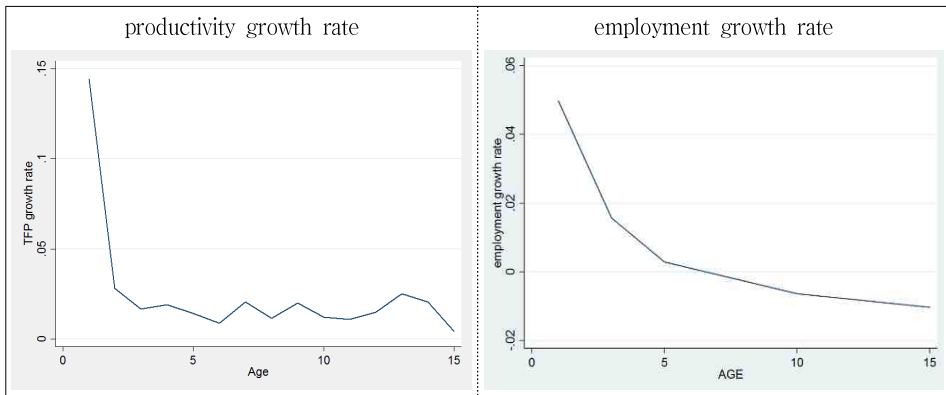
우수한 기업의 진입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퇴출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

6)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높으나 진입기업의 생존율이 낮아 신규고용이 단기간에 소멸되고 이에 따라 고용 및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도 낮다(이윤수 외, 2023).

7) 2020년기준 독일의 창업률이 7.2%, 이탈리아 6.5%, 프랑스 11.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통계청의 기업생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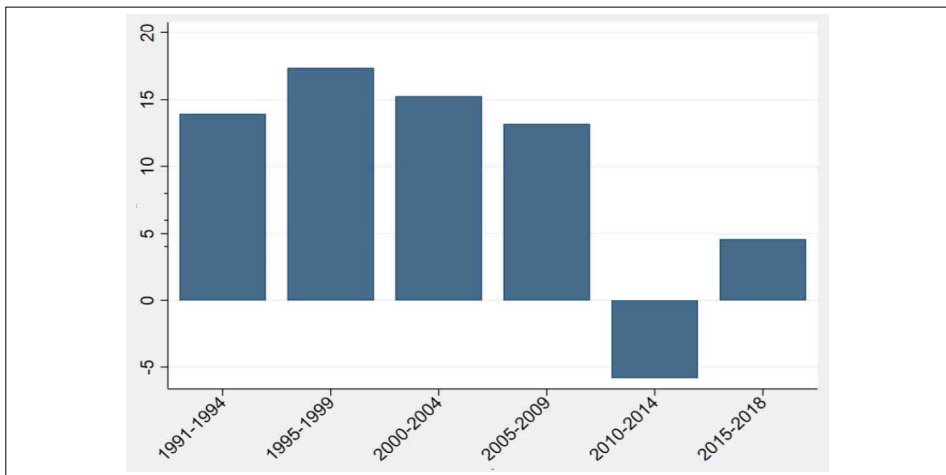
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입과 퇴출에 의한 생산성 기여가 상대적으로 작다.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를 내부효과, 재분배효과, 진입효과 및 퇴출 효과로 구분한 결과 진입효과, 퇴출효과 및 재분배효과에 의한 생산성 기여도는 매우 낮고 내부효과에 의한 생산성 기여가 대부분이다(이윤수 외, 2019). 이는 우리나라에서 창업률과 창업기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창업에 의한 생산성기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Figure 7〉 Productivity and Employment Growth by Business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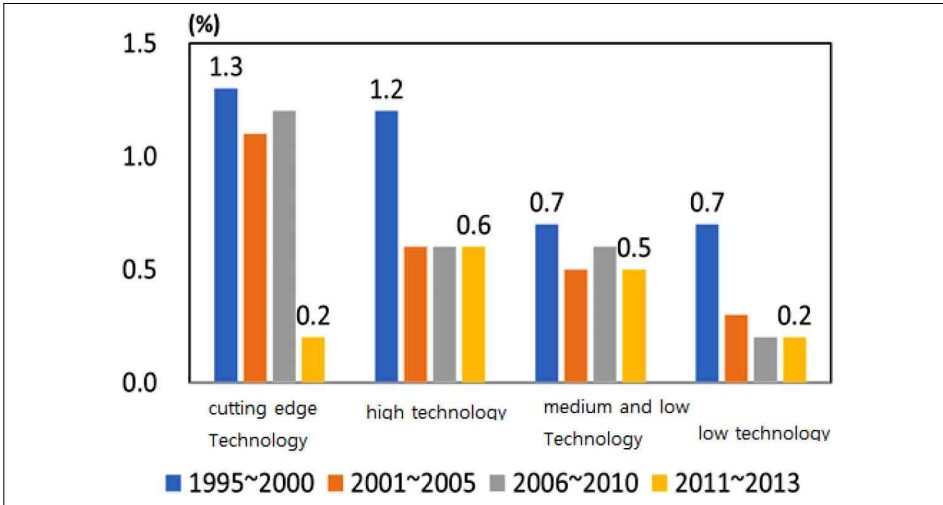
Source: Quoted from Lee Yun-Soo (2023).

〈Figure 8〉 Productivity (TFP) Growth Rate of Young Enterprises  
(Manufacturing, Less Than 10 Years in Operation)



Source: Lee Yun-Soo et al. (2023).

〈Figure 9〉 Contribution to Productivity (TFP) Growth of Young Enterprises  
by Technology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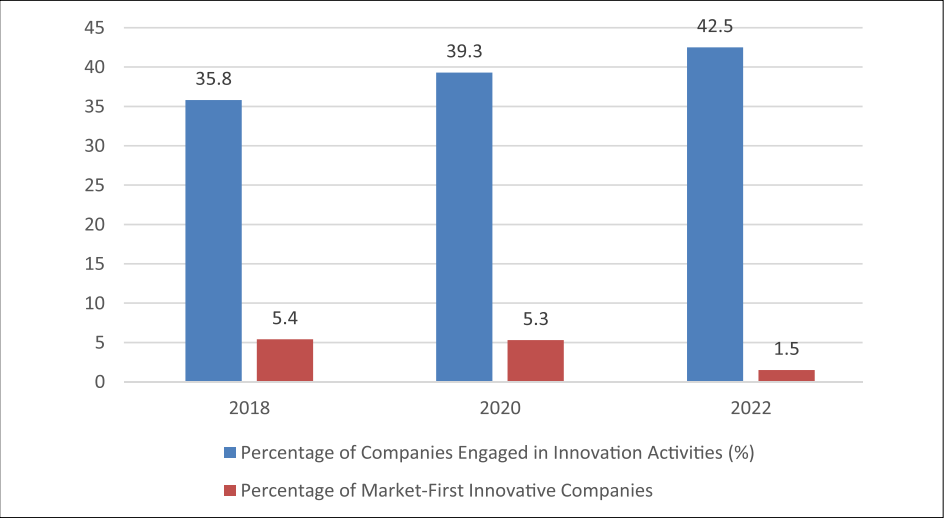
Source: Kim, Minho (2017).

일반적으로 젊은 사업체의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 사업체의 감소는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산성과 고용 모두 창업 초기 직후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젊은 중소기업(업력 10년 미만)의 생산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ure 7〉 참조). 또한 〈Figure 8〉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2010년대 들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저기술보다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젊은 기업의 생산성 증가의 하락속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Figure 9〉 참조). 이렇게 젊은 사업체 수의 감소와 함께 젊은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은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기업의 역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혁신투자(R&D)인데 우리나라의 혁신투자규모는 GDP 대비 2.83%로 OECD 국가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OECD 통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규모도 작지 않아 전체 R&D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R&D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42.5%에 달했지만, 진정으로 혁신기업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최초혁신기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Figure 10〉 참조). 이러한 현상은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성과 창출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R&D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Figure 10〉 Share of Innovation Activities i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



Source: Kim, Sun-Woo (2024), Directions for Redesigning R&D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창업율은 과거에 비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창업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기업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아 창업기업들이 발전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들의 생산성 기여도도 높지 못해 창업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혁신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의 효과성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중소기업의 과제

##### 1.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특히 서비스업과 소규모 기업의 생산



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2022)에서도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약 50%)으로 올리면 1인당 GDP는 약 40% 정도 상승할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약 85%)으로 올리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6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일인당 국민소득을 35,000달러라고 할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1인당 국민소득이 50,000달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기업 규모의 증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생산성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분배 악화로 인해 저성장효과가 발생하게 된다.<sup>8)</sup>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 비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대 노력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심명규(2024)의 연구에서도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조업에 대한 지원정책보다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9)</sup>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이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단순한 생산보조금이나 마케팅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R&D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8) 김세직·안재신(2020)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장기성장을 하락의 35%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비중이 증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9) 심명규(2024)의 연구에 따르면 생산비용지원의 GDP 승수가 서비스업은 0.73, 제조업은 0.69로 추정되고, 단기적인 마케팅 지원의 승수는 승수가 서비스업은 0.91, 제조업은 0.82으로 추정된다. R&D 지원 정책은 GDP에 대한 지출 승수가 서비스업은 1.6, 제조업은 1.3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요하다.

## 2.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과 규모화

경제의 활기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창업과 소멸, 그리고 번성과 쇠퇴의 유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틀이 기업생태계다. 기업생태계가 건강하면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이들은 창업하기 쉽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퇴출당한다. 또 우수기업은 번성하고 열등기업은 쇠퇴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기업생태계는 창업이 어렵고 실패 기업도 퇴출당하지 않아 나라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창업을 통해 성장하여 발전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소멸 및 퇴출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건강한 기업생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창업, 성장, 퇴출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탄생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 건강한 기업생태계는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기술을 보유한 높은 생산성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향상된다.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임금 상승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기의 선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건강한 기업생태계에서는 자원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며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Caballero et al. (2008)은 일본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정상기업의 투자, 고용 및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론·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송상윤(2020)의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0~2018년 중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에 불과하고, 소규모 만성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동일 규모 정상기업 노동생산성의 44.2%로 매우 낮다. 또한 한계기업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만성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배한형 외(2019)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는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나아가 타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구원(2017)의 연구보고서에서도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중소기업과 창업은 전통적으로 고용과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

만 최근 연구는 기업의 규모보다는 연혁이 일자리나 경제성장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윤수, 2024).<sup>10)</sup> 즉, 소규모 사업체보다 젊은 사업체와 창업 기업이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높은 진입률에도 불구하고 젊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입기업 생존율이 낮아 창업으로 창출된 신규 고용이 단기간 내 소멸되는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젊은 기업의 성장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한계기업의 퇴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규모를 확대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서 기업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동성을 강화하고, 한계 중소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며,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 창업지원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역량 있는 창업기업이 규모를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단순 창업 장려를 넘어, 성장 가능성과 혁신 잠재력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윤수(2024)의 연구에서도 영업보조금은 퇴출 과정을 왜곡하여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창업보조금(진입비용보조)은 진입기업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며, 진입기업 평균 생산성과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업보조금이나 창업보조금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비중을 높이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방향은 단순한 창업 장려를 넘어,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성장 가능성과 혁신 잠재력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0) Haltiwanger, J., Jarmin, R. S., and Miranda, J. (2013)의 미국 기업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업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 창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업연력을 통제하면 기업규모와 일자리 창출간에는 체계적 관계가 없다. 반면 신생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증거기반하의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매우 큰 수준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GDP의 1.6%에 해당하는 35조원(2023): STEPI).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다수가 개별기업을 선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sup>11)</sup>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고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원이 기업의 성장동력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머물게 하는 제도보다는 혁신 및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특히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에게 사용선택권이 부여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인 수출지원사업(수출바우처사업)은 효과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보다 경쟁촉진적이고 성장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지형, 2024).

또한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데이터·증거기반하의 중소기업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증거기반하의 정책 전환은 정부혁신 및 역량 강화와 직결되며 지원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OECD(2019)에서도 정책의 설계와 집행, 성과관리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기반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시스템적 대응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sup>12)</sup> 특히 최근 들어 정책 관련 각종 데이터가 축적되고 빅데이터 기법이나 AI 활용기법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증거기반하의 정책 개발이나 지원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을 위한 기술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AI를 활용한 기술평가기법(AIRATE나 KPAS2)을 도입하고 있는데, AI 활용 기술평가방법이 전문가 평가방법보다 효과성이 높게 (매출액이 높거나 유사하지만 기술평가 소요 기간은 짧아짐) 나타나고 있다(김흥기 외, 2024).

11) OECD(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3.0%(OECD 평균 33.6%)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중소기업의 36%(OECD 평균 26%)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12) 김민호·한재필(2020)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선별에 AI를 적용한 결과, AI는 지원의 효과가 낮은 대상을 분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증거기반하의 정책개발이나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이나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자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 및 지원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SIMS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이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통합관리시스템(SIMS)이 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공개되면 지원 기업선정 과정이나 지원 내역과 지원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됨은 물론 증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4. 중소기업의 R&D 지원의 효과성 증대

중소기업의 R&D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R&D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윤수진 외, 2023). 또한 중소기업의 R&D 연구결과는 방법론에 따라 R&D의 효과성이 차이가 나고 있다(전제형 · 신호철, 2024). R&D 지원은 고용인원과 R&D 지출에는 긍정적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매출액 측면의 효과는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sup>13)</sup>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중소기업 R&D지원 방법(기업 선별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민호(2024)도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 선별에 달려 있는데, 현재 정부지원사업 대상 선정에는 기업의 특성 정보 및 지원 이후 성과를 포함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내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R&D 지원 방식을 보면 일정 조건하에 기업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 여부를 심사위원들에게 맡겨 선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자의 책무성이 부족하고 짧은 시간 내에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우수한 기업이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sup>14)</sup>

13) PS-DID 방식에 의해서는 정부 R&D 지원이 매출액을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CS-DID 방법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14) 이러한 지원대상 선별문제는 R&D지원뿐만 아니라 수출지원, 창업지원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우수한 기업이 선정되도록 선정과정이 보다 책무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팁스(TIPS)의 선정방법과 같이, 민간(투자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정부는 수동적으로 보육공간 및 R&D자금을 지원하여 선정의 책무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15)</sup> 또한 R&D 지원을 할 때 보다 전문기관 등(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업의 기술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해 R&D 지원을 결정하면 보다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져 R&D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오근엽, 2024). 최근 들어서는 AI 기법을 활용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면 선정비용(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 후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sup>16)</sup> AI기법을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정책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우리나라 경제는 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7~8%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경제성장의 기적 국가로 평가 받았다. 그 결과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장기성장률은 급속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2% 전후에 머물고 있고 이러한 추세라면 0%대의 성장률도 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소득의 불평등도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에 속해 있어 사회적 갈등이나 진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저성장과 불평등 현상의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서비스업과 소규모 기업에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큰 것이 저성장과 불평등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

업 지원사업에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R&D 지원사업에서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업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15) 팁스는 엔젤투자사,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등을 운영사로 선발하고, 운영사는 팁스 기관에 투자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추천한다. 이후 팁스 기관은 추천받은 창업팀 중 일부를 추려낸 뒤 최종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에 보육 장소 및 연구개발비를 약 2년간 지원하고 운영사 주도하에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 등이 이루어진다.

16) Monica Andini (2019)는 신용보증에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하면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성장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역동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규모의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OECD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성이 매우 떨어짐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저성장을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역동적 기업 생태계는 창업과 퇴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생산성 높은 기업의 탄생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은 활발하지만, 젊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 부족과 만성적 한계기업의 미퇴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계기업의 퇴출과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 ■ 참 고 문 헌

1. 김민호, “기업 스케일업 (Scale-up)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한국경제 생산성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24.  
(Translated in English) Kim, Minho, “Improvement Measures for SME Support Policies for Corporate Scale-up and Reform Measures for Enhancing the Productivity of the Korean Economy,” in Reform Measures for Enhancing the Productivity of the Korean Econom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4.
2. ———, “자원분배와 생산성: 한국 제조업의 역동성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7.  
(Translated in English) Kim, Minho, “Resource Allocation and Productivity: Dynamics and Implications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7.
3. 김민호·한재필, 『AI 기반 정부지원 통합체계 구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20.  
(Translated in English) Kim, Minho & Jaepil Han, “Establishing an AI-Based Integrated Government Support Syste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0.
4. 김선우, “중소기업 R&D지원의 재설계방향,” STEPI, 2024.  
(Translated in English) Kim, Sunwoo, “Redesigning SME R&D Supporting Policies,” STEPI, 2024.

5. 김세직,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경제논집』, Vol. 55, No. 1, 2016, pp. 3-27.  
(Translated in English) Kim, Sejik, “The Korean Economy: Growth Crisis and Structural Reform,” *Economic Journal*, Vol. 55, No. 1, 2016, pp. 3-27.
6. 김세직 · 안재빈, “한국 거시경제진단: 장기성장을 하락의 구조적 원인,”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20.  
(Translated in English) Kim, Sejik & Jaebin Ahn, “A Macroeconomic Diagnosis of Korea: Structural Causes of the Decline in Long-Term Growth Rate,” Paper presented at Korea’s Allied Economic Associations Annual Meeting, 2020.
7. 김원규,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산업연구원, 2017.  
(Translated in English) Kim, Wonkyu, “Expansion of Marginal Firms and Productivity Slowdow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2017.
8. 김인준 · 이영섭,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 율곡출판사, 2023.  
(Translated in English) Kim, Injun, and Youngseop Lee, *This Economic Crisis is Different*, Yulgok Publishing, 2023.
9. 김천구 외. “저성장극복을 위한 성장지향형 기업정책,” 한국국제경제학회, 2023.  
(Translated in English) Kim, Cheongu et al., “Growth-Oriented Corporate Policies to Overcome Low Growth,”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2023.
10. 김홍기 · 오근엽 · 김태기, “기술평가제도의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연구,” 한국경제학회 중소기업정책컨퍼런스, 2024.  
(Translated in English) Kim, Hongkee, Keun-yeop Oh, and Taegi Kim,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and Future Development Plans,” SME and Venture Business Policy Conferenc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2024.
11. 김홍기 · 이상원 · 전현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이 창업기의 혁신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학연구』, 제71집 제4호, 2023, pp. 143-170.  
(Translated in English) Kim, Hongkee, Sangwon Lee, and Hyunbae Jeon, “The Effects of Private-Led Technology Startup Programs on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Early Stage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71, No. 4, 2023, pp. 143-170.
12. 노민선,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 분석(1999~2019),” 『KOSBI 중소기업컨퍼런스』, 2021.  
(Translated in English) Noh, Minsun, “Analysis of Changes in Labor Market Disparities Between Large and Small-Medium Enterprises(1999 - 2019),” KOSBI SME Conference, 2021.
13. 박지형, 『중소기업정책 빅데이터 조사 · 평가 방법론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Translated in English) Park, Ji-Hyung, Big Data Survey and Evaluation Methodology Development for SME Polic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2024.
14. 배한형 외, “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역할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제48권 제3호, 2019, pp. 69-87.  
(Translated in English) Bae, Han-Hyung et al., “The Effect of the Proportion of Marginal Firms in an Industry on Firm Productivity: Focusing on the Role of Firms’ Participation in



- Global Value Chains,” *Market Economy Research*, Vol. 48, No. 3, 2019, pp.69-87.
15. 송상윤,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20-7호, 2020.  
(Translated in English) Song, Sang-Yoon, “The Impact of Marginal Firms on Labor Productivity in Korea’s Manufacturing Sector,” *BOK Issue Note*, No. 2020-7, 2020.
  16. 심명규, “서비스 수출지원 효과 분석,” 중소벤처기업 컨퍼런스 발표논문, 한국경제학회, 2024.  
(Translated in English) Sim, Myung-Kyu,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Service Export Support,” Paper presented at the SME and Venture Business Conferenc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2024.
  17. 오근엽, “기술평가제도의 성과,” 중소벤처기업 컨퍼런스 발표논문, 한국경제학회, 2024.  
(Translated in English) Oh, Keun-Yeop,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SME and Venture Business Conferenc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2024.
  18. 우진희 · 한종석, 『중소기업 재정지원 정책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Translated in English) Woo, Jin-Hee, and Jong-Seok Han, The Impact of SME Financial Support Policies on Manufacturing Productivity,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7.
  19. 윤수진 외, 『정부의 기업 R&D 재정지원 전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계 방안 탐색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Translated in English) Yoon, Su-Jin et al., Research on Policy Linkages to Strengthen the Strategic Approach of Government R&D Financial Support for Firms,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23.
  20. 이윤수 외 “한국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 성장의 지속성과 역동성,” 국민경제자문회의, 2023.  
(Translated in English) Lee, Yoon-Soo et al.,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s Economic Growth: Sustainability and Dynamism of Growth,”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2023.
  21. 이윤수 · 김원혁 · 지정구, “사업체의 창업과 성장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제25권 제3호, 2019, pp.131-162.  
(Translated in English) Lee, Yoon-Soo, Won-Hyuk Kim, and Je-Goo Ji, “The Impact of Business Creation and Growth on Productivity Growth,” *Korean Economic Analysis*, Vol. 25, No. 3, 2019, pp.131-162.
  22. 전계형 · 신호철, “중소기업 R&D의 인과효과 분석: 전통적 방법과 최신 방법들의 비교 분석,” 중소벤처기업 컨퍼런스 발표논문, 한국경제학회, 2024.  
(Translated in English) Jeon, Gye-Hyeong, and Ho-Cheol Shin, “Causal Effect Analysis of SME R&D: Comparison of Traditional and Advanced Methods,” Paper presented at the SME and Venture Business Conferenc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2024.
  23.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2024.  
(Translated in English) Korea Productivity Cente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2024.
  24. \_\_\_\_\_, 『서비스업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동생산성』, 2024.

- (Translated in English) Korea Productivity Center, Labor Productivity by Firm Size and Industry in the Service Sector, 2024.
25. \_\_\_\_\_, 『제조업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동생산성』, 2024.  
(Translated in English) Korea Productivity Center, Labor Productivity by Firm Size and Industr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2024.
26. \_\_\_\_\_,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2023.  
(Translated in English) Korea Productivity Cente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2023.
27. Caballero, R. J., T. Hoshi, and A. K. Kashyap,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5 No. 5, 2008, pp.1943-1977.
28. Decker, R., J. Haltiwanger, R. Jarmin, and J. Miranda,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US Job Creation and Economic Dynamism,"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8, No. 3, 2014, pp.3-24.
29. Haltiwanger, J., R. S. Jarmin, and J. Miranda, "Who Creates Jobs? Small vs. Large vs. You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5, No. 2, 2013, pp.347-361.
30. Hopenhayn, H., and R. Rogerson, "Job Turnover and Policy Evaluat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1, No. 5, 1993, pp.915-938.
31. Hopenhayn, H. A., "Entry, Exit, and Firm Dynamics in Long Run Equilibrium," *Econometrica*, Vol. 60, No. 5, 1992, pp.1127-1150.
32. Lee, Yoonsoo, "Long-Term Shifts in Korean Manufacturing and plant-Level Productivity Dynamic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020.
33. Monica Andini, Michela Boldrini, Emanuele Ciani, Guido de Blasio, Alessio D'Ignazio and Andrea Paladin, "Machine Learning in the Service of Policy Targeting: The Case of Public Credit Guarantees," *Working Paper*, 2019.
34. OECD,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SDBS), 2019.

## Challeng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 Korea for Future Growth\*

Hongkee Kim\*\*

### Abstract

South Korea achieved a high growth rate of 7-8%, earning its reputation as a miracle country of economic growth until the mid-1990s. However, since the 1990s, the long-term growth rate has drastically declined, recently hovering around 2%, with projections suggesting a potential drop to near 0%. Additionally, income inequality is relatively high among OECD countries, exacerbating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s.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particularly noting that the service sector and smaller businesses, which are primarily SMEs, are experiencing declining productivity. The large productivity gap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is identified as a cause of slow growth and inequality.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crucial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SMEs, especially service-oriented and smaller businesses. This pap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 dynamic business ecosystem and improving SME productivity as primary tasks. Promoting competition and innovation, and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through business expansion are necessary to enhance productivity.

**Key Word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ivity, low growth rate, inequality, scale-up, dynamic business ecosystem, evidence-based policy

**JEL Classification:** A1, M0

---

*Received: Feb. 24, 2025. Revised: March 6, 2025. Accepted: March 26, 2025.*

\* I would like to thank the anonymous reviewers for their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of this pape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nam University,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34430, Korea, Phone: +82-42-629-7597, e-mail: hongkee@hnu.kr